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하루 전인 29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전시관 2관(포용디자인과 삶)에서 디자인 제품들이 공개되고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65일간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You, the World: How Design Embraces Humanity)'를 주제로 열린다. /뉴스시스

‘포용의 언어로 그리는 세상’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너라는 세계’ 주제 19개국 작가 163점 선보여

세계·삶·모빌리티·미래 주제로 한 포용디자인

포용디자인 적용한 광주송정역... 국제심포지엄도

“내가 편한 디자인이 다른 사람도 편한 것일까? 일종의 오지랖을 부려보는 거죠.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디자인을 위해서요.”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너라는 세계’를 주제로 7일부터 두달 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광주비엔날레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65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너라는 세계’는 포용 디자인을 주제로 디자인의 의미와 역할을 되돌아본다. 우리를 둘러싼 디자인이 서로를 인식하고 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디자인이 차별과 소외의 벽을 허물고 공존을 이끄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감자칼, 포크, 청소도구 같은 생활용품부터 기후위기와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는 구조물, 누군가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문구, 성소수자와 이민자 등 소외된 존재를 잇는 앱, 신체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까지, 공동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19개국 429명의 참여작가가 163점을 선보인다.

디자인비엔날레는 4개 주제로 구성된 본전시, 포용디자인을 적용한 광주도시철도 프로젝트, 국제심포지엄, 각 국이 참여한 72시간 포용디자인 챌린지로 구성됐다.

◆세계·삶·모빌리티·미래 등 4개 주제 주요전시
디자인비엔날레 전시는 크게 세계, 삶,

모빌리티, 미래 주제를 통해 포용디자인의 진수를 보여준다.

전시 시작 구역인 인트로존에서는 형형색색 네온사인관을 통한 포용디자인 핵심 가치를 전달한다.

1관 포용디자인과 세계(Inclusive World)는 전 세계가 실천해온 포용디자인의 흐름과 구체적인 사례를 모았다. 이탈리아 응용예술디자인대학 섬유·패션 디자인학과와 연구로 완성된 25벌의 오프쿠튀르 의상 ‘리버스 체인지’(Reverse Change)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 변화와 회복의 이야기를 전한다. 밀라노공과대학 ‘부유하는 등지’는 기후 위기로 발생한 해수면 상승에 대응한 수상 구조물을 표현했다.

2관 포용디자인과 삶(Inclusive Life)은 나, 나와 우리, 나와 사회를 위한 포용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돼 주방 용품부터 가전제품 등 실생활 속 포용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선보인다.

3관 포용디자인과 모빌리티(Inclusive Mobility)는 이동권을 실현하고 전체 교통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사

례를 소개한다. 전시장에서 로봇체어를 직접 타며 교통 약자의 시선을 체험할 수 있다.

4관 포용디자인과 미래(Inclusive Future)는 로보틱스, 인공지능, 자연, 웰빙 등 네 가지 키워드로 인간과 기술의 공존이 윤리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자인을 이야기한다. (2면에 계속) /전광훈 기자

광주시, 2026년 정부예산 3조6616억원 확보

AI2단계·모빌리티·3대 문화시설... 미래동력사업 탄력

광주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인공지능(AI) 2단계,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3대 국가 문화시설 등 미래 성장동력이 포함됐다. 역대 최대인 3조 6616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미래성장 기반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6년 정부예산안’에 광주는 3조 6616억원 규모가 편성돼 지난해 3조 3244억원보다 3372억원(10.1%) 증액됐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예산안 반영액은 2024년 3조 1426억원, 2025년 3조 3244억원이다.

이번 정부예산에는 광주의 미래성장 동력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인공지능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1단계에 이어 실증 중심의 2단계 사업의 마중물 예산인 240억원을 비롯해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 10억 등이 반영됐다.

광주시가 그동안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온 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 문화시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도 모두 포함됐다.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화 지원 10억원,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 미래차 고효율 전장 핵심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문화도시 분야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5억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주관 건립 10억원,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1억5000만원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광주 인문학 산책길 조

성 1억원,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55억원, 아시아 캐리커랜드 조성 45억원,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5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벨트 조성 6억원, 중앙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9억원, 어린이 아트사이언스파크 건립 2억원 등이 반영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17개 사업이 지난해 대비 36억원 증액된 208억원이 반영됐다.

사회 기반 조성 SOC 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267억원 증액된 1665억원,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C) 확장사업 238억원이 확보돼 차질없이 진행된다.

마복동 탄약고 이전 15억원, 광주권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건설 7억 5000만원, 도시철도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19억5000만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672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668억원의 예산도 확보됐다.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예산 17억4000만원과, 국립 광주청소년다문화센터 건립 35억원, 노인일자 리 및 사회활동 지원 875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극비 지원 21억원,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24억5000만원, 전남대학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1억3000만원, 폭우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하수도 관련 사업이 전년 대비 225억원 증액된 636억원이 반영됐다.

강기정 시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 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9월부터 국회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영호남 화합 상징 달빛철도 표류... 2030년 완공 물건너가나

영호남 화합의 상징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가 특별법 통과이후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어 사업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신장돼 탄력이 기대됐지만 12·3계엄정국·탄핵·대선정국에서 사업 추진의 한 축인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퇴와 맞물려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2030년 개통 차질이 예상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9일 열린 2026년 정부예산안 편성 국무회의에서도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이 확정되지 않아 어렵다”며 “9월 중순에 사업과 관련된 지자체·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속 확정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와 대구로 연결되는 달빛철도는 총길이 198.8km, 4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지난 2021년 국토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이후 3년만인 지난

광주~대구 198.8km... 10개 지자체 1시간 내 통과

특별법 통과 이후 1년 8개월 동안 제자리 걸음

계엄·탄핵·대선 맞물려 기재부 예비타당성 검토 중단

해 1월 25일 예비타당성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이어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로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광주와 대구가 1시간 거리로 가까워지면서 관광·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생산유발효과 2035년 3309억원, 2040년 5164억원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해 12·3계엄정국이 터진 데 이어 탄핵, 대선정국과 맞물려 기재부 검토 단계에서 멈춰 새로운 정부의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광주시장과 달빛철도를 이끌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 등의 이유로 사퇴해 한쪽 동력을 잃은 상태다.

달빛철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1년 8개월, 기재부 검토 1년이 지나면서 2030년 개통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확정되더라도 사업비 책정 등을 위한 적정성 검토(10개월)에 이어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1년)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돼 착공은 2028년경 가능하다.

또 공사기간은 5년에서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속도를 내더라도 오는 2033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경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특별법 제정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며 “달빛철도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에 대응해 국가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예비타당성확정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달빛철도는 많은 지자체와 영호남 국회의원이 노력해 만들어낸 사업인데 계엄과 홍 전 시장의 사퇴로 추진동력을 잃었다”며 “9월 중순에 6개 지자체와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NGEF 2025

2025. 9. 17.(수)~18.(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기조강연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2010 노벨물리학상



9.17.(수) 10:30

시민특강

과학분야 유튜브 1위 과학을 보다

M C I 정영진 프로

출연진 | 권석준 교수 | 김병준 교수 | 김성호 교수 | 우주먼지 지용배

9.17.(수) 18:00

주요 일정 안내

일정	프로그램
9.17.(수)	10:00 - 10:30 【내빈환담】 인사말씀, 퍼포먼스 등
	10:30 - 11:50 【기조강연】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대담 박진호 토크 총장직무대행)
	11:50 - 12:30 전시장 투어
9.18.(목)	14:00 - 16:00 【세션 1】 AI for Energy
	18:00 - 19:30 【시민특강】 유튜브 과학을 보다
	10:00 - 12:00 【세션 2】 e2i Square & Innovation
	14:00 - 16:00 【세션 3】 Energy for AI